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2488.97 (-5.49)	코스닥 698.53 (+4.80)
금리 (연평균) 2.553 (+0.012)	환율 (원/달러) 1437.65 (+4.65)

metro® 경제



반도체법 등 친기업 정책 ‘올스톱’... 사업계획 손질 불가피

재계, 대내외 불확실성 최고조
美 트럼프 정부 출범 ‘관세 리스크’
尹 탄핵안 가결... 위기상황 겹쳐
삼성, 오늘부터 사업계획 검토
LG, 이번주 확대경영회의 개최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헌법재판관. /뉴스1

대내외 정국이 급변하며 재계가 내년 사업 계획을 점검하는 등 정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관세 리스크와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 전(前) 탄핵 당시와 비교하면 탄핵 리스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대내외 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수많은 친기업 정책이 ‘올스톱’ 되면서 사업 계획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4면〉**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SK, LG그룹 등은 계열사별 영향과 고객사, 또 해외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사업 계획 수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탄핵 소추안의 가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지만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시점에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어서다. 다만 지난 비상계엄 선포 직후처럼 긴급회의를 소

집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탄핵 쇼크로 인한 ▲내수 위축 ▲수출 차질 ▲해외 브랜드 신뢰도 추락 등에 대한 기민한 대비책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경우 경제정책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사업 계획 수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간 주요 기업들은 12월에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결정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들이 모두 좌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친기업 관련 법안들이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12개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 1조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설립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돼 투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이 또한 어렵게 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오는 17일 ~19일 열리는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탄핵 정국 사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디바이스경영(DX) 부문은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 주재로 17~18일,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 주재로 19일에 각각 회의를 연다.

LG전자는 이번주 조주완 최고경영자(CEO) 주재로 확대 경영회의를 개최한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尹 탄핵’ 심판 사건 27일 변론 준비기일

헌재,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 수명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 현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으로는 정 재판관이 맡게 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현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이다.

현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원승일 기자 won@〉**

한동훈 “정상임무 불가능”... 146일만에 ‘전격 사퇴’

“비상계엄, 고통받은 국민께 죄송 탄핵 찬성, 여전히 후회하지 않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의 변을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미리 기자회견장 앞에서 한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대기했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퇴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하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투버들 같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

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양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냐고 물었다”라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이, 제 인생의 많은 장면이 스쳐 갔다. 마음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본사인사
편집국장 윤 휘 중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송석준, 여당 중앙위 의장 사임... ‘사측생각으로 치열하게 싸울 것’ /사진 뉴스1
▲‘계엄 옹호’ 외교부 외신 PG 자료 논란... 조태열 “알지도 동의도 못해”

▲박찬대 “윤 탄핵에도 할일 첩첩산중... 책임자 엄벌·민생 입법 신속해야”
▲민주 ‘이재명은 친형도 정신병원 감금’ 발언 김용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구속’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악화로 병원 입원
▲우재준 의원 “탄핵 사태 한동훈 대표 책임 아냐” /사진 뉴스1

“국정안정협의체 수용” “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난감’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vs 민주당 ‘살바싸움’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거부하거나 야권 주도 통과법안 거부권 행사” 민주당 “국힘서 주도권 가져가도 경제·민생분야 협의체 구성 요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증권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맞서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거나, 한 권한대행에게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재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멈추겠다면서, 상황에 따라 탄핵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이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과 국가안보

실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을 보좌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전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업무협조를 논의했다. 이번 주 중에 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다른 수석실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살바 싸움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살바 싸움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같은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당수습이 완료되면 조속히 당정협의체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국회의장과 권한대행이 모두 호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이다. 이같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내세우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아직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 등을 요구할 때 거절할 명분도 없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만큼, 민주당과 대립 구도를 세우기 어렵다.

당장 이대표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이나 농업4법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국무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이 넘는 야권의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국정안정’에 방점을 둔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최상목 “여야 막론하고 협력... 경제정책 차질없이 추진”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경제6단체에 기업활동 위축방지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활동 위축 방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

행에서 코우칭 리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면담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와 리 소장은 한은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했다.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

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 소장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

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11월 기재부-AMRO 간 연례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건실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 및 미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2·3 계엄령 사태 이후 가중된



경제불확실성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소기업성장공약공제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암료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8(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노란우산은 예금저축은행에 따라 예금보험금에 가입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장려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원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美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韓, 수출·내수 현안 대응 시급

금리격차 따라 자본유출 부담완화 1400원대 환율 지속... 내수 영향 "경제상황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번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의 예상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좁혀져 자본유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로 높고, '탄핵 정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기는 더더욱 늦어질 수 있다. 내수(투자·소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0.5%p 낮춘 뒤 10월 0.25%p를 추가 인하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4.75%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출 확률을



지난 9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워싱턴의 연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97.1%로 내다봤다. 인하할 확률은 한 달 전 61.9%에서 일주일전 86%까지 오른 뒤, 이날 기준 97%까지 올랐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우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비농업고용지수는 22만7000명으로 지난 9월(25만4000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실업률도 4.2%로 우려하는 수준(4.4%)보다 낮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p 내린 뒤 "정책 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까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 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하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최대 2%p까지 벌어졌던 한·미간 금리격차는 11월 기준 1.5%p 축소됐다. 금리격차가 줄어들어 비슷해지면 자본유출 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날 오후 3시 53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6.70원을 나타냈다. 지난 주말 대비 1.50원 올랐다. 이 상황에 내수(투자·소비)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가 낮아져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자본유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정치·경제·안보 등에 대한 투자자들

의 우려로 한국증시가 실제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 8월부터 6달 연속 순유출됐다. 국내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을 우려한 영향이다. 여기에 정치적 비상계엄·탄핵 사태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다.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내수회복이 더뎠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평가의 주된 근거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였다. '탄핵 정국'은 악재가 널린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높였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글로벌 지정학은 밀릴의 한 가운데 들어섰고, 반도체 업황 둔화와 수출통제 등의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게임발동과 해제, 지도자 공백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을 맞이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하향과 밸류에이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반도체법 등 친기업...'서 계속

신년 경영전략 수립 분주 경제과장 최소화 '한뜻'

회의엔 각 사업본부 경영진과 해외 거점 지역 대표, 법인장이 총출동한다. 구 회장은 지난 12일 사장단 협의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미래 성장 사업과 관련해 '빠른 실행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도 탄핵 이후 국내 상황이 그룹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매년 6월 경영전략회의, 9월 이천포럼, 10월 CEO 세미나 등을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계엄 사태 직후 최창원 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주관으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이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대차는 이번주 해외 권역별 본부장회의를 개최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내년 사업 전략 논의에 집중한다. 정 회장은 연초 신년사를 위한 타운홀 미팅도 수시로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도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1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재계는 탄핵 정국에 직면한 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입법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1면 '한동훈 정상임무 불가'서 계속

"계엄이 잘못이라 해서 거야 폭주 정당화 안돼"

또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따로 질문을 받지 않고 국회 본청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한 대표에 날을 세우는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를 배웅했다. 한 대표의 차량은 한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 소통관 앞으로 향했다. 친한계 의원과 당직자들도 차량과 함께 이동하며 배웅했다. 200여 명의 지지자들을 한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아쉬워했다. 한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치적 혼란에 밸류업 기대감 '뚝'... "세제혜택 등 동력 잃어"

금융 등 밸류업 대표주 회복세 더디 "내년초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탄핵 정국과 세제혜택 백지화 등으로 인해 동력을 잃고 있다. 저조한 기업 참여율을 올릴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한 가운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빠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대표주로 꼽히는 금융·증권 종목들의 주가 회복세가 특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2·3 계엄사태 이후 'KRX 은행지수'와 'KRX 증권지수'는 각각 10.08%, 5.53%씩 떨어지며 직격타를 맞았다. 13일 종가(2494.46포인트) 기준 코스피는 계엄사태 직전이었던 3일 종가 2500.10에 근접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지만 금융주들은 회복세가 더딘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지수는 상승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모습이지만,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엇갈리고 있다. 밸류업이 윤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해 온 정책인 만큼 정권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밸류업 유인책으로 꼽히던 세제혜택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대중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밸류업 등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크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취임한 뒤에는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했던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들은 빠진 모습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주주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공제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내놨지만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혜택 등이 빠졌다. 더불어 중견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좌초됐다. 이번 세제 인센티브는 애초에도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마저도 삭제 처리되면서 기업들의 참여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수출,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산자부, 민생·경제안정 과제 논의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수출, 외국인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각 실각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

고,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도 높은 만큼 2025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펴나가기로 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체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활동)를 계속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동훈 지도부 붕괴... '쇄신 없는 결속'에 민심 이탈 가속화

탄핵 후폭풍 속 친윤 결집만 남아 비상계엄 찬성과 '부역자' 낙인 논란 비대위 논의 속 쇄신없는 안정 추구 영남 자민련 비판, '전국 정당' 위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로 민심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어 진짜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표의 사퇴로 16일 한동훈 지도부는 막을 내렸다. 탄핵안 가결의 여파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친윤계가 한 대표와 탄핵 찬성파를 '부역자' 운운하며 압박한 결과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조사한 결과(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8%,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시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73.6%)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한다(69.5%)고 응답했으나, 정작 탄핵 공개 찬성을 요구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꼴이 됐다. 한 대표는 민심을 택했으나, 대다수 의원은 보수 지지층을 봤다는 평가다.

한 대표가 사퇴한 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서두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중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의에선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이 세가지는 잘 이룰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

서 개선하고 총의를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 내에선 5선 권영세·나경원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세평에 오르고 있다.

중진 사이에선 이 모든 책임을 한 대표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친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제가 그런 말을 했다. 일부에서 부역자란 표현이 있었는데 과연 계엄을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 잘 해야 한다.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계엄을 막은 사람이 배신자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당 지지자들만 믿고 위협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호소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싸워줄 국민이 누구인가"라며 "일부 극우 세력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굉장히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말 궤멸 위기에 처한

보수를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친윤계 의원이 민주당 부역자(탄핵 찬성파)를 덮어내고 90명끼리 똘똘 뭉치자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지금 우리는 전국 당이 아니다. 영남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지 않나"라며 "이분들(탄핵 반대파)께서 전국적인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계속 재창출하는 것이 관심인지, 아니면 영남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들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권력 쟁취를 목표로 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저변을 넓히거나 중간층을 끌어들이어서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가 아니라 똘똘 뭉쳐서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끼리 어깨동무하고 가자는 입장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생존력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임박... "박근혜 사례 준용해 곧 발표"

특검법 추진, 내란·김건희 특검 압박 정국 수습 본격화, 대정부 질의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이나 내일 발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추진을 위한 '탄핵소추위원단'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3명, 야당이었던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졌고 이것에 준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상설특검법과 일반 특검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반특검법은 내일(17일)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공포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그래야 비상 정국에서 원활한 여야간, 정부간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과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가칭)이란 이름으로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입법과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수 회복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이제명 대표 기자회견 등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내수 활성화, AI 지원, 전력공급망 인프라 지원"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60가지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정리돼 있다고 한다. 예산 협상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입법과제는 민생경제회복단 중심으로 같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실무적으로 오는 23~24일에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하자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의 지도부 교체로 구체적인 일정 확정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의총에선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언대에 서서 이번 계엄이 일부 국가기관에 국한된 계엄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비상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12·12 사태 때도 서울부터 장악하고 전국으로 확대됐고 이번에는 전국 단위의 계엄이었다"라며 "전 국가 차원에서 행정권, 사법권 장악의도가 있었고 계엄사령관이 전체를 총괄하고 지구사령관과 지역사령관을 뒤서 군정 통치를 기획한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尹 대통령, 내란혐의 출석 요구 거부... 강제수사 가능성 커진다

공조본, 18일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 검찰 긴급체포·체포영장 가능성 확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직권 남용 혐의로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조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그 어디에서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상태다. 검찰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통보를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용산 대통령실 전달 실패. /뉴스시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대통령실과 관저 현장에서 전달되지 않았다"며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라 출석 요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명으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불발됐다. 이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업무소관이 아니이라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한 차례 검찰의 출석 통보도 거부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조본에 이어 검찰 특수본도 이날 2차 출석 통보를 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모두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들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소환에 거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경찰이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한 이유도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원승일 기자 won@

삼성생명

삼성금융연금액

아무한테나 말해주는 거 아닌데..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적립금도 1위더라

내가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1위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규모와 경험의 차이가 만드는 퇴직연금력

삼성생명 퇴직연금 DC/IRP

[47년 장기간 운용 노하우]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전금융권 1위]

[퇴직연금 전문가 398명]

* 2024년 3분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DC/IRP]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 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실적배당형(펀드) 상품]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7758호 (2024.11.26~2025.11.25)

사라지는 지방 백화점... “어려운 경제 속 매출부진 원인”

지난 6월 롯데백화점 마산점 영업 종료
부산 센텀시티점도 매각 절차 돌입
경기 이전, 서울 구로구 등도 폐점
인구 감소로 수요 ↓ 온라인쇼핑 ↑

과거 유통업계 소비의 황금 탑으로 불리던 백화점들이 점차 입지를 잃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국내 유통업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주요 백화점의 매각과 폐점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유통업계에 불어닥친 불경기 상황에 따라, 백화점들이 하나둘 비매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백화점은 개점 후 대부분 약 10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점에 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30일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영업을 종료했다. 롯데쇼핑이 대우백화점을 인수해 재



롯데백화점 마산점 전경 사진

/롯데

단장한 지 약 10년 만에 폐점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도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07년에 문을 연 이 점포는 만약 매각이 확정되면 약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비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백화점 폐점은 진행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이전에 있는 NC백화점 이천점이 지난해 8월 말 폐점을 단행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역시 오는 2025년 6월 폐점을 예고했다. 두 백화점 모두 개점한 지 1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폐점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한편, 오랜 시간 지역 상권을 지킨 백화점도 폐점 수순을 밟는다. 경기도 고

양시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일산점은 내년 2월 영업을 중단한다. 1996년 개점해 약 28년간 상권을 지킨 백화점이 영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폐점의 주요 요인은 매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나오는 점포를 폐점할 이유는 없다”며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업 효율화를 위해 매출 부진 점포가 구조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백화점의 매출은 상위 몇 개 점포에 집중돼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신세계백화점의 상위 3개 점포 매출 합계는 전체 매출의 55.4%를 차지했으며,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상위 3개 점포 매출 비중도 각각 45.1%와 43.5%에 달했다.

특히 이들 최상위 점포는 수도권 핵심 지역인 강남, 잠실, 판교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백화점 매출 구조가 수도권 내 고소득 소비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

심으로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방 백화점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 유통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지방을 중심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포를 지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 백화점이 폐점할 경우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로 수요가 없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는 등의 이유가 작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또, 지방 위주 백화점을 폐점해 그 부지에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일 건데 지 금도 미분양 물건이 많은 상황에서 그것도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비트코인, 장중 10만6000달러 돌파... 금리인하·산타렐리 영향

(사상 최고가)

美 트럼프 ‘친 가상화폐’ 정책에 이어
연준, FOMC서 금리인하 가능성 ↑
크리스마스 전후로 가격 상승 기대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장중 한 때 10만6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가상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2기’의 기대감에 더해 미 연준이 오는 17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 전망이 확실시되면서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산타 렐리’에 대한 기대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16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12시 30분 기준 10만4827.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대비 3.01%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 5일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6일 서울 서초구 빙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한때 10만6000달러(약 1억5200만 원)까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스

10만 달러를 넘긴 데 이어 11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장중 최고가는 10만6449.88달러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구글이 공개한 신형 ‘양자컴퓨터’가 가상화폐의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가격이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락했지만, 양자컴퓨터 상용화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것은 ‘친(親) 가상화폐’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당선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우위가 결정된 지난 11월 이후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초와 비교해 50% 가까이 올랐다.

내년 1월 20일 2번째 임기 취임을 앞둔 트럼프는 ‘친 가상화폐’를 주요한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중국 등 경제 적 대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가상화폐를 전자자산 차원에서 선제 비축하고, 미국 내 가상화폐 산업 육성에도 힘쓴다는 내용이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달 재무장관으로 지목한 스톡 베넷 재무장관, 상무장관으로 지목한 하워드 러트릭, 이달 5일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목한 폴 애틀킨스 등은 모두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인물로 꼽힌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는 17~18일(현지시간) 개최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

할 것이라는 확신도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렸다.

시카고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7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7.1%로 전망했다. 이달 초 예측치인 61.6%에서 35.5%포인트(p) 높아진 수준이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산타 렐리’에 대한 기대감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0년 가운데 크리스마스 직 전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7번이다.

시장에서 18일 금리인하를 확인하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은 18일 FOMC 이후 발표될 점도표가 결정할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지난달까지 자동차 누적수출액 648억달러

(역대 최고)

산업부, 동기 최고기록비 3억달러 많아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연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기대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48억달러를 기록했다. 동기 최고 기록은 작년 1월~11월 645억달러로 3억 달러 많다.

다만, 지난달엔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출액과 내수 판매, 생산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56억4000만달러(22.9만대)로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중형 3사(한국지엠 +9.1%, KGM +219.3%, 르노코리아 +197.5%)에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미국 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한 인천-평택항 선적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억3000만달러(3.8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55.6%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내수 판매의 경우 사상 최초로 5만대를 돌파(전년동월 대비 +21.6%)했다.

11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은 트렉스, 아반떼,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투싼, 펠리세이드, 스포티지 등 순이다.

11월 전체 내수 판매는 14만8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7.9% 감소했으나,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 판촉강화로 올해 월 기준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 승용차 모델별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쏘렌토, 쏘나타, 카니발, 쏘나타, 그랑콜레오스 등 순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4만4000대로 7.1% 줄었다. 전년 대비 평일이 하루 감소했고, 변속기 등 일부 부품 공급 차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업계 소통강화, 수출에 호소 등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방의회 국외출장 중 부적절 행태 확인

권익위, 항공권 조작 등 위반사례 조치

#. A의회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발권한 뒤 이를 이코노미 등급으로 위조해 예산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다시 발권받아 출장을 다녀왔다.

#. B의회는 항공권 요금을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 사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가 최근 3년간 915건의 국외출장을 통해 약 355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동행 출장까지 포함하면 약 400억원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광 목적의 일정을 포함하며, 부족한 비용을 여행사 강연비나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에서 부풀려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됐다. 특히, 항공권 위·변조 사례는 405건(44.2%)에 달했다.

방문 지역 분석 결과, 출장 일정 상당수가 관광 중심으로 이뤄졌다. 싱가포르 출장 94건 중 74회는 가든스바이더베이, 73회는 URA시티갤러리 방문이 포함되는 등 관광지 방문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환수,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관리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韓 집결 3000만원대 보급형 시장 공략

테슬라, 내년초 모델Q 출시 예정
BYD, '아토3' 등 저가모델 공세
현대차·기아, 라인업 확대 방침

국내 전기차 시장을 둘러싸고 가격 경쟁이 한층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내년 초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테슬라도 내년 상반기 저가형 전기차 모델Q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와 기아가 올해 저가형 모델인 코나EV와 EV3를 출시한 가운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달 초 도이치방크와의 기업설명회(IR)에서 저가형 EV 출시 일정을 공개했다. '모델Q' (가칭)라는 차종명으로 알려진 차량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소형 해치백인 차량은 전장(길이)이 4m가 안 되고,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주행 가능 거리가

500km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Q 가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에도 실구매가가 3만7499달러(53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보급형 '모델3'의 가장 낮은 가격인 4만4130달러(6320만원)보다도 6000달러 이상 저렴하다.

내년 초 국내 진출을 선언한 BYD는 현대차그룹의 안방 공략을 위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내년 초 국내 출시 모델과 가격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중형 전기 세단인 셀(SEAL), 소형 SUV인 아토3(ATTO3), 소형 해치백인 돌핀(DOLPHIN)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을 거친 데 이어 현재 환경부의 인증을 받고 있다. 인증 절차가 끝나면 보조금과 국내 판매 가격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모델 중 가격이 저렴한 '아토3'

는 중국 현지서 30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2000만원 후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기차는 코나EV, EV3와 경쟁을 펼친다. 가격 면에서는 국내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아도 300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어 아토3가 앞선다.

현대차·기아는 저가형 라인업을 갖춘 만큼 내년에는 라인업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9, 아이오닉 6N,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기아는 EV4와 EV5(내수), EV2(유럽) 등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춰 다양한 라인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BYD가 국내 동급 대비 가격 경쟁력 있는 모델로 공략한다면 현대차 기아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때까지 판매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가 CES 2025에서 공감지능(AI)을 적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인 '인캐빈 센싱(In-Cab in sensing, 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솔루션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모델이 콘셉트 차량에서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모습. /LG전자

LG전자, '운전자 공감 AI' 첫 선

미리보는 CES 2025

'인캐빈 센싱' 솔루션 체험공간 마련
차량 내부 감지·분석... 안전운행 지원

LG전자가 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한다.

LG전자는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인 '인캐빈 센싱(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솔루션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 VS사업본부가 CES에서 관람객 대상으로 전시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완성차 기업 고객 대상으로 비공개 부스만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관람객에게 AI로 달라질 미래 모빌리티 경험과 주행 트렌드를 선보이기 위해 LG전자 부스 내에 체험존을 꾸민다.

관람객은 전시장에 설치된 콘셉트 차량에 탑승해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게 된다. 관람객이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AI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판단하고, 착용하지 않았거나 체결이 잘못됐다면 알람을 통해 올바르게 장착하도록 알려준다.

운전자 얼굴 표정을 인식해 기쁨, 보통, 짜증, 화남 등 내 가지 기분을 디스플레이에 이모티콘으로 표시해준다. 실시간으로 심박수도 측정해 숫자로 나타낸다.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예방

에도움이 된다.

운전석에 탑승한 관람객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한국, 스위스, 이탈리아 중 한 곳을 응시하면 운전자 시선을 감지, 해당 국가가 선택돼 주행이 시작된다.

LG전자 인캐빈 센싱 솔루션의 AI 기술은 운전자의 주행 편의 또한 돕는다. 예를 들어 외국어로 표기돼 있는 도로 교통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표지판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운전 중 운전자가 관심 갖게 본 랜드마크나 조형물 등을 센서가 자동 인식해 기억한다.

주행이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디스플레이에 기억해 둔 장소나 조형물에 대해 설명해준다. 운전 중 졸음과 부주의한 행동 정도를 판단해 안전운행 점수도 알려준다.

인캐빈 센싱 솔루션은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차량 내부를 감지·분석해 교통사고도 예방한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과 운전자 및 차량 내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DIMS)은 카메라로 운전자의 시선, 머리 움직임 등을 세밀하게 감지해 분석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행동이 감지되면 경고음을 내서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운전자와 공감하는 AI 기술을 적용한 인캐빈 센싱 솔루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오토에버, 인니 합작법인 '테라 링크 테크놀로지' 설립

동남아시아 고품질 차량용 지도 구축

현대오토에버가 인도의 맵마인디아와 협력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차량용 지도와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현대오토에버는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합작법인 '테라 링크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합작법인은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고품질 지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며 내비게이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국가별로 통행방향, 노면표시 등 도로 환경의 차이가 있어 각 지역에 맞춘 지도 데이터의 필요성이



16일(현지시간) 현대오토에버와 맵마인디아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김윤구 현대오토에버 사장(왼쪽)과 맵마인디아의 로한 베르마 CEO&ED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크다.

현대오토에버는 합작법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6개국의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브루나이,

미얀마 등 인접 국가 지도까지 확보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동남아시아 지역 지도의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솔루션은 내비게이션 지도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지도를 결합하며 차선정보, 노면표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지도다. 합작법인은 확보한 원도(原圖)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대상 지도 공급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 내비게이션사업부장 서동권 상무는 "고품질의 차량용 지도를 구축해 현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내비게이션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글로벌비스 DJSI '월드지수' 편입

현대글로벌비스는 16일 2024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월드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됐다고 밝혔다.

DJSI는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S&P 글로벌 스위스 SA가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2021년 국내 물류기업 중 최초로 월드 지수에 편입된 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 기준 운수 및 교통 인프라 부문 3위다.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평가를 진행한 것과 역량 향상 교육과정 신설 등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양성운 기자

현대로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본격 운용

대경선 적용... 첫 정규 영업 운행

국산 기술로 탄생한 열차제어시스템이 첫 정규 영업 운행에 돌입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14일부터 운영한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인 대경선(구미역~경산역) 전동차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이 최초로 적용됐다고 16일 밝혔다.

KTCS-2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인 국내 신호시스템 표준화와 국산화 계획에 따라 개발됐다. 201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연구에 참가해 68개월 만인 2018년에 연구개발, 성능 검증, 제품 인증을 마쳤다.

기존에는 국산화된 철도 신호 기술

이 없어 외국산 신호시스템에 의존해 온 만큼 국내 철도망의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의 열차제어시스템의 규격을 충족해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도 가능하다. 국내 철도망에 확대 적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K-철도신호'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신호체계 표준화로 보다 쾌적한 철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산 신호시스템 운영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고속철도 인프라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아우디, '더 뉴 Q8' 부분변경 모델 판매

19일부터 판매... 4가지 트림

아우디 코리아가 4년 만에 대형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뉴 아우디 Q8'의 부분변경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판매에 나선다.

아우디 Q8은 아우디 SUV 라인업 Q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로 여유로운 공간과 실용적 기능성, 쿠페만의 스타일 리시한 디자인을 접목한 매력적인 차량이다.

이번 부분변경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의 싱글 프레임, 헤드-테일라이트, S 라인 외장 패키지, 22인치 휠 등을 기본 적용했다.

또 운전자 편의사양도 대거 추가했다. 블랙 헤드라잉, 앞좌석 전동-통



아우디 코리아가 4년 만에 부분변경 모델로 선보인 대형 프리미엄 SUV '더 뉴 아우디 Q8'.

풍·마사지, 앞·뒷좌석 열선 기능을 포함한 발코나 가죽 S 스포츠 플러스 시트 등을 적용했다. 세련되면서도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Q8 부분변경 모델은 Q8 50 TDI 콰트로의 기본형과 프리미엄, Q8 55 TF SI 콰트로의 기본형과 프리미엄 등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됐다. /양성운 기자

오픈AI ‘영리법인화’ 논란… 메타·머스크 “공익 배신” 반발

메타, 영리법인 전환 중단 서한 제출
머스크 “영리화 위험통제 불가” 경고
오픈AI “성장 위한 불가피 선택” 주장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에 이어 모질라, 메타가 영리법인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메타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로브 본타에 서한을 보내고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 중단을 요청했다.

메타는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하면 자신 활동 기업들의 영리법인 전환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오픈AI의 과거 비영리 활동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썼다. 이어 오픈AI가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해 수십억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비영리법인으로 취득한 기부금을 영리법인의 이익으로 재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메타의 요청이 공개된 후 브렛 테일러 오픈AI 이사회 의장은 “영리법인 전환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계속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리법인으로서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직원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영리법인을 두고 있지만 이를 ‘인류에 이롭게 하겠다’는 사명을 가진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통제하는 구조를 갖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두고 빅테크 수장들이 가져본 신청을 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 철학과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고 있다. 모기업까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오픈AI는 일반 기업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된다. 일각에서는 오픈AI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공익법인 전환 또한 고려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빙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현재 오픈AI는 비영리법인 유지와 영리법인 전환에 관한 계획 발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CEO의 가져본 신청을 시작으로 불타올랐다. 일론 머스크는 “원고와 대응은 오픈AI가 가진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비영리적 성격을 계속 갖도록 하는 가져본 명령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청서에 밝혔다. 머스크 측은 11월에도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에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마크 서먼 모질라(Mozilla) CEO도 성명서를 내고 “오픈AI의 원칙을 따르던 이들이 이탈하는 현상은 장기적인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가 아는 한, 이미 오픈AI는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모질라는 비영리 재단과 연구기관을 통해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만든 기업이다.

영리법인 전환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빅테크 기업들 외 내부 관계자에도 걸쳐서 나오고 있다.

오픈AI의 전(前) 연구 엔지니어인 윌리엄 손더스는 기고문을 통해 “오픈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면 비영리 이사회 중요한 통제권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인공일반지능(AGI)를 둘러싼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결정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재정적 기대와 윤리적 의무 사이에서 오픈AI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알 수는 없지만, AI의 사회적 책임이 일정 부분 훼손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는 2015년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AGI를 개발하겠다는 사명을 가진 비영리 단체로 설립됐다. 다만 이들은 2019년 AI 기술 개발에 있어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일리야 수츠케버 전 오픈AI 수석과학자는 “사명을 수행하면서도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자와 직원들이 얻을 수 있는 자본에 상한선을 둔 영리법인을 설립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이익 극대화에 반대하던 수츠케버 등이 축출 당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며 수익화에 집중한 샘 알트먼이 퇴출 3개월 만에 돌아온 일을 들어 영리법인화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알트먼은 오픈AI의 가장 큰 투자자인 MS의 적극적인 공세로 복귀할 수 있었고 수츠케버는 직무 정지 후 결국 퇴사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공간·스타일·가격 모두 잡은 ‘올라운더’”

한국GM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美 3분기 누적 판매량 14만 9762대
내수 시장서 소형세단 대체하며 성장
SUV 공간·세단 승차감 모두 갖춰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젊은 소비자들은 첫차로 준중형 세단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선택했지만 최근 세단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그 자리를 CUV가 과감히 차지하며 엔트리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이 가운데 소형부터 준중형, 중형 세단 시장까지 커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다재다능한 상품성으로 CUV 대표 모델로 자리잡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UV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CUV 모델인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올 3분기 누적 판매대수 14만 9762대를 기록하며 소형 SUV 시장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129.5%나 판매량이 상승해 글로벌 시장에서 CUV 바람이 거세지고 있음을 알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이하 KAMA)에 따르면 2023년 경 소형 세단 등록대수는 13만 3965대로 전년도 대비 7.5% 감소한 반면 동기간 CUV를 포함한 SUV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8%나 증가했다.

올해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올해 10월까지 내수 시장 누적 판매량에서 소형 세단은 전년 동기 대비

15.5% 가장 하락한 반면 SUV의 판매량은 1.9% 상승했다. 내수 판매 순위 톱 5 모델 중 세단 모델은 단 한 대뿐인 정도다.

엔트리 시장 인기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CUV의 인기 비결은 SUV와 세단의 장점을 모두 확보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이어 현재까지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 1위를 기록 중인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이러한 CUV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소형부터 준중형, 중형 세단 시장까지 커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민첩한 핸들링 등 세단의 좋은 점들을 대거 흡수했다.

세단보다 높고 SUV보다 낮은 차체 높이로 승차감이 편리하며, SUV 못지않은 넓은 시야와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덕분에 2열 헤드룸이 좁은 세단 모델보다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실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비슷한 가격대의 준중형 세단보다 훨씬 넓은

실내 공간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능케 해준다. 차박 캠핑은 물론, 가구 등 부피가 큰 물건을 어렵지 않게 실을 수도 있으며, 자전거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장비 적재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타일리쉬한 디자인도 인기 비결 중 하나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소형 SUV보다 낮고 넓은 디자인과 늘씬함이 돋보이는 측면비율, 루프가 날렵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스타일을 적용해 쉐보레의 스포츠카 카마로를 연상시킨다. 여기에 역동성을 표현한 RS 트림과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테마로 한 액티브 트림은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이달 중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에게 3.9% 이율로 최대 36개월 초저리 할부 또는 4.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의 초장기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네이버 지도, 현실 공간감 3차원 구현

‘거리뷰 3D’ 서비스 정식 오픈

네이버 지도가 공간지능 기술 기반, 3차원 환경에서 제공되는 거리뷰를 선보인다. 네이버는 거리뷰 상에서도 건물 및 업체 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하며 보다 입체적인 장소 탐색 경험이 가능한 ‘거리뷰 3D’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 3D’는 오프라인 공간감을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가깝게 3차원 환경으로 구현한 서비스다.

이번 거리뷰 3D는 서울 내 대형 상권지에 우선 적용됐다.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등 서울 내 다수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우선 활용 가능하며, 대상 지역은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 지도는 지난 4월 거리뷰 3D를 서울 강남과 종로 북촌 등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하며 기술 및 안정성 등을 테스트한 바 있다. 이후 장소 세부 안내 등 이용 편의를 높이는 기능 고도화를 거쳐 이번 네이버 지도 데이트하게 됐다. /김서현 기자

‘비즈온’, 누적 가입 회선 전년비 200% ↑

LGU+ 타 상품 대비 통신비 절약

LG유플러스는 중견기업 고객용 인터넷 전용회선 ‘비즈온’의 누적 가입 회선이 지난해 대비 올해 약 200%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월 출시한 비즈온은 중견기업 고객의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넷 전용회선이다. 타 상품 대비 가격과 속도의 효율성이 특징이다. 고객이 업·다운로드 속도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고, 그 속도만큼 요금을 지불해 효과적으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고객이 더욱 효

율적으로 비즈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역폭 자동화(Bandwidth on Demand, BoD)’ 기능도 적용했다. 이는 특정 순간 많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 고객이 임시적으로 가입 인터넷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만든 기능이다.

가령 게임사에서 대용량 개선 작업을 진행하거나, 대학 기숙사에서 수강신청 일에 많은 학생이 한 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업로드 속도를 임시적으로 높이는 구조다. 이 기능은 추가적인 금액 부담과 별도의 번거로운 서류 제출 과정 없이 한 달에 1번, 연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ONTES
 PRIDE IN WINEMAKING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엠앤씨솔루션, 상장 첫날 20.31% '뚝'... IPO 시장 '찬바람'

올해 마지막 IPO 대어 주목에도
공모가 대비 20.31% 하락 마감
IPO 시장 침체·고평가 논란 원인

코스닥 새내기주 '벡트' 98.21% ↑
온코크로스 등 코스닥 상장 예정

올해 마지막 IPO 대어로 주목받았던 엠앤씨솔루션이 상장 첫날 약세로 마감해 IPO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분위기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새내기 공모주의 부진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분위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엠앤씨솔루션은 코스피 시장에서 공모가 대비 1만3200원(20.31%) 하락한 5만1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K9 자주포와 K2 전자 등에 적용되는 포·포탑 구동장치를 제조하는 방산업체인 엠앤씨솔루션은 올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상장 과정에서 잇따른 흥행 부진으로 실망스러운 성적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기업공개(IPO) 시장 이미지.

표를 냈다.

지난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이 8.18대 1에 그쳤고, 공모가도 희망 공모가 밴드(8만~9만3300원) 하단보다 19% 낮은 6만5000원에 확정됐다. 이어진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통합 경쟁률이 2.4대 1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엠앤씨솔루션의 청약 부진은 IPO 시장 전반의 침체와 함께 고평가 논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엠앤씨솔루션(MNC솔루션)은 연간 순이익이 300억 원에도 못미치지만 공모밸류는 최대 8800억원으로 제시돼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주요 비교 기업인 LIG넥스원의

주가 급락과 구주매출 비중(50%)의 높은 비율도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모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신주 발행과 달리 구주매출은 기존 주주에게 돌아간다.

반면 이날 코스닥 시장 새내기주인 벡트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벡트는 공모가(3900원) 대비 3830원(98.21%) 뚝 77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앞서 벡트는 지난달 25~29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96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모가는 희망 범위(3500~3900원) 상단으로 확정됐다. 일반 청약에서는 1170.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IPO 시장은 10월 이후 신규 상장 기업들이 공모가를 밀도는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공모주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씨케이솔루션, 미트박스글로벌, 삼양앤씨켐, 동방메디컬, 아이에스티이, 모티브링크, 데이원컴퍼니 등은 상장을 마무리하거나 철회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8일과 19일에는

인공지능(AI) 신약 플랫폼 기업 온코크로스와 바이오 기업 온코니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상장한다. 온코크로스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약 1313대 1로 집계됐다. 청약 건수는 6만1357건, 주문액의 절반을 미리 납입하는 청약 증거금은 약 1조 7000억원이었다.

온코크로스와 함께 청약을 마감한 신약 연구개발 기업 온코니테라퓨틱스는 92대 1로 일반 청약을 마감했다. MNC솔루션이 일반 청약에서 2.4대 1의 경쟁률로 겨우 미달을 피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IPO 기업은 더욱 큰 부침을 겪는다"며 "공모가가 낮게 설정되더라도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면서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내년 초까지 증시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 4개월째 '오리무중' 'SOL 美배당 미국채혼합50' 순자산 1500억

지난 8월 5일 중단 이후 재개 안 돼
증권사 "안정성 고려해야"... '신중'

미국 주식 시장이 연말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조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여전히 낮 시간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낮 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주간거래 서비스'가 지난 8월 5일 중단된 이후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복원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증권사들의 주간거래 서비스를 도맡았던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 간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4개월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산타렐리' 기대감이 고조되며 활기를 띠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11일(현지시간)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신고점을 갱신했다.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며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투자자들이 몰리는 형국이다.

한 해의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는 '써머 타임 체제'가 끝나면서 미국 정규장이 열리는 시간도 늦어져 본장에 투자하려면 더 피곤해졌다"면서 "주간거래가 될 때는 이런 걱정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가 되지 않아 불편해하고 있는 투자자 이미지.

이 전혀 없었는데 언제 주간거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어 불편함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간거래는 국내 투자자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2022년 삼성증권에 시작으로 주요 증권사들이 도입했다. '블랙먼데이'를 기록한 지난 8월 5일, 블루오션은 국내 투자자들의 폭증한 주간거래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고 거래를 일괄 취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약 9만 계좌, 6300억원 규모의 거래가 무효 처리됐다.

금융투자협회는 블루오션 측에 시스

템 장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블루오션은 성명서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주간거래 재개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주식거래 안정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 주간거래는 'NMSStock ATS'에서 체결된다는 점에서 정규거래소를 통한 주식거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주간 거래에서 오류가 생기면 또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거래 편의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그 전에 국내 증권사는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국내 증권사들이 블루오션 ATS의 시스템 점검에 직접 참여해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거래의 일방적 취소에 따른 보상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한자산운용, 상장 2개월 만에 15배 ↑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규모가 15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상장 이후 약 2개월 만에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는 43개 자산배분형(멀티에셋) ETF 중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한 일반계좌에서 최근 1개월, 3개월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개인투자자가 상장 이후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1200억원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순매수했다"라며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가 연금투자자들 사이에서 퇴직연금 계좌

내 안전자산 30%의 투자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자금 유입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미국채 10년을 5:5 비중으로 투자하는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납입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변동성장세에서도 성과 방어가 가능한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장점에 더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을 강화했고, 퇴직연금 내 주식비중을 최대로 높일 수 있어 다양한 연금투자전략 구성에 도움이 되는 월배당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증권,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수상

금융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 주관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금융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사가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빗 뱅크 어워드(Global Private Bank Award)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를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는 1987년 뉴욕에서 창간된 금융 전문지로 약 190개국에 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금융기관을 종합평가해 다양한 분야의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그 중 금번 미래에셋증권이 수상한 상은 고객자산가의 다양한 니즈를 이해하고 수준 높은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어진다.

글로벌파이낸스에 따르면 미래에셋증



권은 ▲ 고객자산을 위한 종합자산관리 역량 ▲ 프라이빗 멤버십 서비스 ▲ 수준 높은 AI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 WM 실적 성장 및 고객 자산 규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월 영국 유로머니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로 선정된 데 이어 금번 수상을 통해 국내 최고의 고객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으며, 특히 이 상이 한국 증권사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성과 1위

테스트베드 운용 시작한 지 1년 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퇴직연금 일일 서비스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이하

KimRobo)가 테스트베드참여업체별 평균 누적 수익률, 평균 샤프지수를 통틀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에서 운용을 시작한지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16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 중인 KimRobo의 전체 알고리즘의 평균 누적 수익률은 24.01%에 달한다.

/허정윤 기자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최승재 “규제혁신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무원, 소상공인 등 79명 수상
구분규 법제처 부이사관 근정포장
최 옴부즈만 “경제발전의 주역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선 규제혁신을 위해 올 한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 등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복



(왼쪽 3번째부터)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업 투자 확대, 디지털 대출 혁신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왔다. 옴부즈만과 협력하며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선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로 법제처 구분규

부이사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강희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역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 박화선 실장은 가업승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

들이 원활하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한 ‘참! 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에선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대표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에스제이타워 박성진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다양한 후원회와 모금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또 세종기술 송진호·송성모 대표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관련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두 대표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 살리기’에 애쓴 조원시장 김병근 대표가 ‘참! 좋은 중소기업상’ 소상공인 부문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행장은 수상자인 구분규 부이사관, 박성진 대표 등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넓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절반 “정치 불안으로 직·간접 피해” 중기부 “기업 지원 등 정책 차질없이 추진”

중기중앙회, 긴급현황 조사 진행
응답자 47% “향후 피해 가능성 있어”

비상계업과 탄핵 등 국내 정치 불안이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주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는데다, 앞으로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9%가 국내 정치상황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아직 피해는 없지만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46.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12일 사흘간 진행했다. 외식업자 248명, 숙박업자 257명 등 총 505명이 설문문에 참여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자의 피해율이

52.4%로 숙박업자(41.6%)보다 조금 높았다. 유형별로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회식 취소(외식업), 여행객의 투숙 취소 및 안전 여부 문의(숙박업) 등이 있었다.

국내경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한 물음에는 40.4%가 ‘1~2년 간’을 꼽았다. ‘6개월 이내’가 30.1%, ‘2년 이상 장기화’가 17.8%로 나타났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행 중인 경영환경 개선노력으로는 ‘원가 절감, 구조 조정 등 비용 절감’이 60.4%로 가장 높았다. 프로모션 진행 등 홍보 강화(11.3%), 경영자금 조달처 확대(8.7%), 사업 다변화 모색(3.2%)이 뒤를 이었다.

/김승호 기자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회의
오영주 장관 “현장 더욱 자주 방문”

중소벤처기업부가 본부간부 및 지방 중소기업청장을 전원 소집해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확대간부회의’를 16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청이 중심이 돼 지역상인회 등 협·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소상공인 애로를 수렴하라”며 “수출지원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비상계업 발생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긴급간부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내차례 이상 비상간부회의를 수시로 소집했다.

지난 11일에는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애로를 신속 파악 및 대응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지방중기청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상인연합회 등 협회, 단체와 주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지방중기청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율급등애로를 신고·접수 중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환율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달부터는 환리스크 헷지 관련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정치적 불안 장기화 및 환율 인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 상황 점검·대응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연말 특수 기대감이 컸지만 송년행사가 취소되고 외국관광객까지 감소하는 등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도 확정된 만큼 사업 및 정책을 신속 수립하고 재정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신속한 상황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현장을 더욱 자주 방문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폴스텐 살균 비데’ 출시

SK매직이 폴스텐 노즐에 전해수 살균을 더해 위생을 강화한 ‘폴스텐 살균 비데’를 출시했다.

16일 SK매직에 따르면 폴스텐 스파 비데는 강력한 살균 능력을 갖춘 전해수로 물통과 물이 흐르는 유로부터 세균에 쉽게 노출되는 노즐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비데에서 관리가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노즐을 폴스테인리스로 만들어 변색과 부식에 강하다.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딥테크 특구기업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업무협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손잡고 딥테크 특구기업 육성 등을 위해 나선다.

대중기협력재단은 16일 서울 중구 상생협력재단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딥테크 특구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상생협력재단은

▲대기업·공공기관 네트워크, 인프라 등 정보 공유 및 파트너십 구축 지원 ▲대기업·공공기관과 특구기업 간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등 지원 ▲대기업·공공기관과 특구기업의 공동 마케팅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행사 공동 개최 및 사업·제도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전력반도체’ 등 지속가능성 중심 AI 3.1시대, 환경보호·혁신 목표

KIAT, ‘10대 유망산업’ 발표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AI 기술 활용
AI헬스케어·그린 디지털 등 선정
민병주 원장 “기회 선점하도록 지원”

전력반도체와 디지털 휴먼 등의 산업이 AI(인공지능)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시대에 유망한 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 AI 3.1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 견인 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할 ‘2025 KIA T 10대 유망산업’을 발표했다.

AI 3.1시대란 이론·논리 중심의 AI(1.0시대), 머신러닝·딥러닝(2.0시대), 생성형AI(3.0시대)를 넘어 AI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KIAT가 선정한 10대 유망산업은 ▲전력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AI헬스케어 ▲융합형 자율주행차 ▲그린 디지털 ▲순환 소재 ▲디지털 휴먼 ▲멀티모달 AI ▲지능형 자율제조 ▲온디바이스 AI이다.

2021년 이후 다섯 번째 발표하는 KIAT 10대 유망산업은 기술, 이슈 중심의 일반적 전망과 달리 산업관점의 성장 흐름과 지원 영향 등이 고려됐다.

올해의 경우 AI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다. AI가 산업에 적용될 경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력을 높이지만, 적용과

2025 KIAT 10대 유망산업		
미래 선도	첨단 산업재	전력반도체산업 전력을 변환·분배·제어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활용하는 반도체 산업
	첨단 바이오	AI헬스케어산업 바이오·의료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경쟁 대응	친환경 운송	융합형 자율주행차산업 차량-클라우드 시스템-도로 인프라 간의 연결성을 통해 주행 신뢰성을 향상하는 자율주행차 산업
	친환경 에너지·소재	그린 디지털 산업 AIoT를 활용해 건물, 제조현장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기술 혁신	스마트 생활 서비스	디지털 휴먼 산업 인공지능, 3D 모델링 기반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 및 활용하는 콘텐츠 산업
	스마트 제조	멀티모달 AI 산업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초거대 AI 모델 산업
		지능형 자율제조 산업 제조현장에 지능형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자율적으로 생산, 검사, 출하하는 제조 산업
	온디바이스 AI 산업 인터넷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AI 탑재 산업	

자료/KIAT

정에서 AI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전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된다.

이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순환 분야를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

KIAT는 이번 10대 유망산업 발굴을 위해 최근 출원된 국내·외 특허와 논문 키워드를 분석해 3대 영역 6대 분야별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문헌·특허 빅데이터 분석, 요인 분석과 더불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산학연 전

문가 80여명이 참여해 산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민병주 KIAT 원장은 “AI가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유망산업을 선정했다”며 “최근 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며 글로벌 산업계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도전 지속 지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대전서 ‘청년 소통의 장’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도전과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농식품부가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한 ‘농업·농촌·농산업을 미래! 청년 소통의 장’에 참석해 “청년들이 본인들의 성장뿐 아니라 농업, 농촌, 농산업을 발전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청년들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들 목소리의 정책 반영을 위해 20·30세대로 이루어진 자문단(20명)을 운영 중이다. 그간 제1기 자문단이 총 52건의 정책 제안을 냈고 그중 23건이 정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그중 주요 내용이 이번 행사에서 소개됐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아 영농 중인 청년들이 가공 및 체험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만 원료로 사용하도록 제한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본인이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반도체 불황, 전자·통신 업종 출하액 급감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전자 및 통신 업종 출하액이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8000억 원(2.5%) 감소했다.

사업체당 평균 출하액은 272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2.3%) 줄었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도 671조2000억 원으로 53조5000억 원(7.4%) 감소했다.

특히, 전자·통신 업종의 출하액은 15.9% 줄어들면서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부가가치 역시 35.1% 줄었다. 반도체 수요 감소를 비롯해 단가 하락, LCD 출하량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화학제품 제조업 출하액은 국제 유

가 하락으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내려가면서 12.2%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는 2.3% 증가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제조업은 친환경 차 및 고가 차량의 판매가 늘어 출하액이 16.3% 증가했다.

지난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384개로, 전년대비 208개(0.3%) 감소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으로 인한 폐업과 해외 이전 영향으로 섬유제품 관련 사업체 수가 141개(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자·통신 업종은 정보기술(IT) 업황 침체 영향으로 사업체 수가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0.3%) 줄었다. 종사자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전기장비(9300명 감소·4.3%)와 전자·통신(7200명 감소·2.1%)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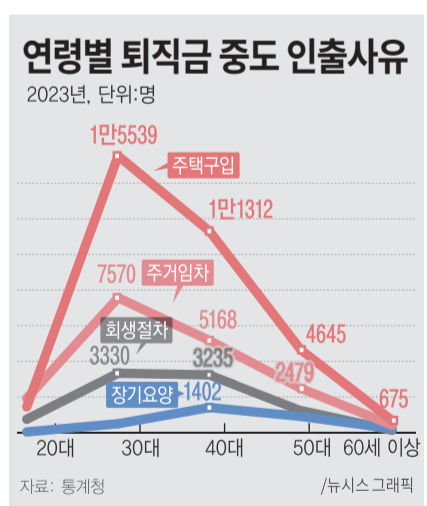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퇴직금 중도인출 6.4만명... 주거비 80% 차지

통계청, ‘2023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
DB형 54%, DC형 26%, IRP 20%
퇴직연금 적립금 381조 역대 최고치

지난해 재직 중에 퇴직금을 빼다 쓴 직장인이 전년대비 25% 넘게 늘어났다. 이들 중 열에 여덟은 주택 매입 등의 주거비 용도로 중도 인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한 인원은 2022년보다 28.1%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40.0% 증가한 2조4000억 원이었다.

인출 사유로는 주거비(80.2%) 마련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이 중 주택 구



입이 52.7%, 주거 임차가 27.5%, 회생절차가 13.6%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의 주거 임차가, 기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8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났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고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금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은 53.7%,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25.9%,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0%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전년대비 2.6%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은행 활용 성과 주목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2024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개인부문 9점과 단체부문 2점 등 총 11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직무능력은행 활용

사례 발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우수사례로 제출된 작품 중 1차(정량평가) 및 2차(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개인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직장인 김길환씨는,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쌓아두기만 했던 교육 이수내역, 자격증 취득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경력관리와 자기개발의 도구로 직무능력은행을 향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12년 만에 개편

농식품부, 비용 87만원으로 인하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평균 120만 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 원 수준까지 낮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존 120만 원에서 87만 원 수준으로 30만 원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울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동 사업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는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새롭게 변경된 농가 선발방식은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 설정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인터파크 평점 9.4!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MERRY
SALE



인터파크 티켓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김호연 소설 <불편한 편의점>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김재경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김소영 | 분장디자인 임영희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제이엘컴퍼니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경북도 “정치 상황에도 APEC 정상회의 역대 최고로 만들 것”

의료분야 세부추진계획 발표
필수예산 1716억 확보해 추진 중
숙박시설 정비 등 추가 예산 필요



저스틴 트뤼도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11월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있다.

어지러운 중앙정치 상황으로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정상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경북도는 “역대 최고 행사로 만들겠다”며 세부 점검에 들어갔다.

우선적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도는 지난 13일 경주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APEC 기획단, 경북도 공공의료과, 경주시보건소, 경북 소방본부 등 응급의료 관련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준비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응급의료대책반 구성 운영(3개반 7팀) ▲D-100 일째 응급의료지원단 발족 ▲정상회의장 및 행사장 일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량,

수송 헬기 지원 등 신속한 이송 체계 방안 ▲숙소별 전담병원 매칭 ▲인근 상급종합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분야 세부추진계획’은 중앙정부 초안에 지방정부가 실행방안을 추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방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이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경북도는 이번 ‘의료분야’를 시작

으로 다른 분야도 지방 중심의 계획으로 차질 없이 수립해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정상회의장, 미디어 센터 등 시설 공사에 예비비를 투입해 사전 설계를 하고 국비 확보 직후 바로 공사가 가능토록 한 바 있다.

특히 경북도는 이미 APEC 개최에 필수적인 예산 1716억원을 확보하고 여야의 폭넓은 지지 속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마련돼 행사 추진에

는 별 차질이 없을 예정이다.

확보된 2025년 APEC 국비로는 ▲행사운영비 577억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 ▲주차시설 보강 39억 ▲미디어센터 건립 66억 ▲전시장 및 만찬장 등 행사장 조성 186억 ▲K-콘텐츠 페스티벌 35억 ▲경주국제포럼 15억 ▲글로벌문화혁신포럼 8억 등이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추가 예산으로는 ▲숙박시설 정비 100억 ▲정상회의장 진입로 확포장 304억 ▲야간시설 경관정비 25억 ▲행사장 야간 경관 개선 125억 ▲주변 관광지 경관 개선 100억 ▲APEC 문화동행 축제 50억 등이 필요하다.

이철우 지사는 “좋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하듯, 지방정부 중심의 모범적이고 몰생 틈 없는 준비가 행사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지방과 중앙이 잘 협력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역대 최고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창군 기업 투자유치 평가 ‘우수기관’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기업 투자유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 군 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노력도 ▲우수사례 등 5개 분야 9개 지표의 평가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투자유치 우수기관을 선발한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였다. 고창군은 해당기간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가칭스마트물류센터) 소유권 이전과 용평리조트 토지 매매계약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동김해나들목~식만분기점 연결

부산시는 16일 동김해나들목(IC)~식만분기점(JCT) 간 광역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부의장, 강서구청장, 김해시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도로는 동김해나들목(김해시 어방동)과 식만분기점(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며, 총길이 4.6km의 교량 연결로 5곳, 교차로 2곳 등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897억원(국비 444, 시비 453)이 투입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경남도는 지난 13일 2025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은 섬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운임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을 지원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20만 8000명에게 운임을 지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지역 청년 10명 중 2명 “다른 지역 이주 계획 있어”

3.1만명 대상 부산사회조사 결과 이주 이유로 구직·취업·직장 끝

부산 지역 청년 10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고, 그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구직·취업·직장’ 때문이라고 답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부산시 거주 15세 이상 3만 1144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밝혔다.

1996년 1회 조사 시작으로 올해 29회를 맞은 부산사회조사는 지자체 최초로 부산에서 실시됐으며, 시민 의식과 생활 수준 및 실태, 사회변화상을 알 수 있는 조사로 지역사회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청년층(15~39세) 대상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년 10명 중 2명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이주 이유는 ‘구직, 취업, 직장’이 66.5%(2022년 대비 5.0%p ↑)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부산의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46%(2022년 대비 0.7%p ↑), ‘불안하다’ 10.3%(2022년 대비 0.4%p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시의 안전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안전하다’ 61.3%(2022년 대비 2.5%p ↑), ‘불안하다’ 4.6%(2022년 대비 0.6%p ↑)로 나타났으며, 시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안전사업으로는 ‘교통안전사업’(44.8%)과 ‘범죄·폭력 예방사업’(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목포시, 내년부터 새로운 공영버스 운영

노선 전면개편, 시내버스 공영화 등

목포시는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5년부터는 새로운 공영버스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공론화와 시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노선체계 전면 개편, 노선 공영화, 공영버스 직영사업 및 위탁사업 전환, 공영 인프라 확충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준비하고 있다.

우선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노선체계 전면개편과 6월 미세조정 등을 거쳐 노선 개편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개편 노선의 주요 특징은 운행 효율성 향상을 위해 넓은 길 중심의 경로를 설정하고 직선화하여 기존 20개 노선(시내 13개, 시계의 7개), 137대



목포시 (박홍률 시장)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하여 2025년부터 공영버스체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포시

를 15개 노선(시내 8개, 시계의 8개), 128대로 효율화한 것이다.

한편, 시는 노선개편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독점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고, 1개의 직영사업자(직영 공영제)와 3개의 위탁사업자(노선입찰형 준공영제)가 경쟁하는 공영버스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또한 시는 지난 9월 전국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및 평가를 추진해 금호이스프레스(주), 마창여객(주), ㈜신흥운수 3개 업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김해시, 수출의 탑·유공자 정부포상 수상

관내 기업 38곳, 임직원 19명 선정

김해시는 ‘제61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관내 수출기업 38개사와 임직원 19명이 수출의 탑과 수출유공자 정부포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무역의 날 기념 행사는 지난 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매년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김해시는 수출의 탑 38개사, 수출유공자 19명을 배출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수립했다.

7000만불탑은 케이디에이, 2천만불탑은 제일전자공업, 명성금속, 정아정밀 3개사가 수상했으며 1000만불은 두원하이стил, 템스코, 영케미칼, 에이치앤에스티, 에스아이씨, SC IS P 6개사가 차지했다. 수출유공자 부문에서는 19명이 수상했다.

홍태용 시장은 “해외 시장 개척에 도전하고 수출 성과를 낸 기업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내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또 다른 도전의 한 해가 되겠지만 큰 힘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주시, 내년 국·도비 1조3346억 확보

전년비 2797억 늘어… ‘역대 최대’

국회가 지난 10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가운데, 경주시가 국·도비 1조 3346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정부 예산 대비 2797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국·도비 확보는 APEC 정상회의 예산 반영의 결과로, 총 3246억

원 규모 APEC 예산 가운데 국·도비로 2299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꾸준히 설득해 온 결과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정상회의장 조성 및 리모델링 137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경북문화관광공사 동해중부선 개통 관광상품 개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강원관광재단과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31일 개통하는 동해중부선은 경북 포항에서 강원 삼척까지 이어진다. 전체 거리는 166.3km,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김남일 공사 사장과 최성현 재단 대표이사 등은 이날 삼척의 이사부도독기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관광객 증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주(경북)=김상복 기자

“차별화 서비스&힐링 교육 통해 기업성장 기여하고 파”

인터뷰 | 유은채 CJ프레시웨이 급식사원지원팀 선임

고객사 찾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 강사진 보유... 만족도 높아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업계 최고의 교육 전문가 목표”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사업은 크게 ‘외식’과 ‘급식 식자재’ 유통으로 나뉜다. 급식 식자재 유통사업은 아동 보육시설, 학교, 노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CJ프레시웨이는 특히 급식 사업 운영에 차별화된 고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사 역량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서비스&힐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 급식사원지원팀 유은채 선임은 영양사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아이누리사업부의 영양 및 식습관 교육 직무로 입사한 후 고객사 대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며 역량을 쌓았고, 현재는 급식사원지원팀에서 서비스&힐링 교육 담당자로 활약하고 있다.

유은채 선임은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급식 고객사 직원과 학부모, 자원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퍼스널 컬러진단 ▲석고 오브제 만들기 ▲직무 스트레스 관리 ▲스트로크(STROKE) ▲D.I.S.C. 행동유형 진단 ▲컴플레인 응대법 등이다. 직접 고객사를 찾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주행거리만 연 2만km에 달한다고.

유은채 선임은 “프로그램이 다채로운 이유는 고객사마다 원하는 바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20~40대 여성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힐링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편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과 석고 오브제 만들기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며 “반면, 서비스와 봉사 업무가 많은 복지시설, 급식업체 등은 고객 컴플레인 응대법,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을 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내부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작하다가 위탁 운영하는 구내 식당의 영양사와 배식원 등 고객사 직원들도 똑같이 교육이 필



CJ프레시웨이 급식사원지원팀 유은채 선임이 인터뷰 후 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요하다고 판단해 서비스 힐링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유 선임은 “서비스&힐링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1달 전 신청을 해야 할 만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별도의 시간과 장소 물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고객사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

기 위해 지난해에만 자격증 3개(CS Leaders 관리자, 퍼스널 컬러 전문가 1급, 석고공예전문지도사)를 취득하고,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원래 영양교육 업무를 하다가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은 없었어요. 저도 새롭게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더 재

미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와 역량이 확장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CJ프레시웨이가 이처럼 식자재 유통기업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상품 공급자가 아닌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사 고민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동반성장해 나가기 위함이다. 양질의 식자재뿐 아니라 고객 만족 위한 서비스&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 록인(Lock-in) 효과로 유도하는 것이다.

유 선임은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바탕으로 콘텐츠의 구성이 다양하고 전문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분들이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힐링되는 시간이었다’라거나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보람됨을 느낀다”며 “고객 만족도는 기업 경쟁력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CJ프레시웨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힐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업계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동서식품 “새로운 카누 만나보세요”

BI, 패키지 디자인 전면 변경 스틱커피 제품군 차별화 향미 구현

동서식품의 커피 브랜드 ‘카누(KANU)’가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알리는 ‘카누 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

2011년 출시한 카누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카페 퀄리티의 원두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지난 10여 년간 스틱 커피 기준 누적 100억 잔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보였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커피 취향 변화에 맞춰 카누 라떼, 카누 디카페인, 카누 시그니처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프리미엄 캡슐커피 ‘카누 바리스타’와 ‘카누 원두’ 발매로 카테고리를 넓히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발전해왔다.



카누 제품군 /동서식품

동서식품은 이번 카누 이노베이션을 통해 BI와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변경했다. 2011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변경되는 신규 BI는 간결하면서도 가독성 높은 서체가 사용됐고, 패키지에는 카누 스틱·캡슐·원두 공통으로 체계화된 레이아웃을 적용하여 브랜드의 통일성을 더했다.

카누 스틱 커피의 품질도 개선했다.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아메리카노의 맛을 찾아냈고 카

누 ‘다크’, ‘마일드’, ‘라이트’ 각 제품 특성에 맞게 원두 배합비를 변경하고 각 원두가 가진 속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 제품별로 차별화된 향미를 구현했다.

동서식품은 이번 카누 이노베이션과 함께 신규 TV광고를 선보였다. 광고에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일상 속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며 ‘카누와 함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신원선 기자

나라셀라, ‘몬테스 알파’ 뱀띠 에디션 선보

1만8000병 한정 출시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2025년 뱀띠 해를 맞아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뱀띠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에디션은 지혜와 신중함을 상징하는 뱀띠의 이미지를 레이블 디자인에 담았다. 에너지 넘치는 빨간색과 동전 모양으로 형상화된 잘 익은 포도로 새해의 복과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누적 판매 1600만병을 돌파한 칠레 최초 프리미엄 와인으로 와인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즐기 좋은 레드 와인이다.

이번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뱀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뱀띠 에디션 /나라셀라

띠 에디션’은 1만8000병 한정 출시되며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컬리, ‘한우 반값 특가’ 기획전 진행

컬리가 한우를 최대 50% 할인가에 제공하는 ‘한우 반값 특가’ 기획전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컬리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금)와 협업해 마련됐다. 컬리는 한우 농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할인하고, 한우자조금에서는 2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컬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총 100여 개의 한우 상품을 준비했다. 최대 할인은 50%로, ‘남도우에 무항생제 1++ 한우 등심 구이용’과 ‘경주천년한우 1++

한우 차돌박이 구이용’ 등 다양한 상품을 반값에 제공한다.

행사 상품은 부위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안심 부위로는 ‘Kurly’s 1++ 한우 안심 구이용’과 ‘1등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를 각각 25% 할인하며, ‘남도우에 무항생제 1++ 한우 안심 스테이크’는 12% 할인가에 제공한다.

등심 부위에서는 ‘Kurly’s 1++ 한우 등심’과 ‘KF365 1+ 한우 등심’을 각각 31%와 25% 할인하며, ‘경주천년한우 1++ 한우 등심 구이용’은 19%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롯데온, ‘동행축제 2024’ 참여... “판로확대 도울 것”

할인쿠폰 발행 등 상품판매 지원

롯데쇼핑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이 중소·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인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 2024’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 2024’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위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이달

28일까지 열린다.

롯데온에 따르면, 가장 먼저 롯데온은 기간 중 최대 5000원 또는 최대 1만원까지 할인 가능한 20% 쿠폰을 각각 3장씩 발급해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 판매를 지원한다.

행사장에서는 조미를 하지 않아도 김 본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청해우 두 번 구운 곱창김’을 3만원대에,

실내 생활 악취를 잡아주는 ‘1+1 욕실의 왕 4종 탈취제’ 상품을 1만원대에 제공한다.

아울러 생활·리빙 제품부터 식품·뷰티·유아동·잡화·가전 등 중소기업 인기 상품도 함께 선보여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제약사들, '뷰티 시장' 경쟁 본격화 차별화·소비자 취향 저격으로 승부수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브랜드 확장
종근당 '클리덤' 소비자 맞춤형
대응제약 고기능성 피부 치료 강화

국내 제약 업계가 각사의 뷰티 사업을 차별화하면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마데카' 후속 제품을 내놓으며 브랜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센텔리안24의 흉터 관리 제품 '프로슈티컬스카겔'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총 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제품은 생활 흉터부터 화상이나 수술 후 흉터, 오래된 켈로이드성 흉터, 건조하고 가려운 흉터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동국제약이 독자 개발한 '센텔리아시아티카 추출물'을 핵심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고, 투명한 실리콘 겔 제형을 갖췄다.

동국제약이 앞서 지난 2015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센텔리안24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은 올해 3분기 누적 판매량 6300만개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이 센텔리안24를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으로 올린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규모는 2020억원에 이른다. 이는 동국제약의 올해 3분기 전체 누적 매출의 3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동국제약은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으로 매출 6012억원, 영업이익 628억원, 순이익 540억원 등을 달성했다.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5.2%, 39% 증가했다.

이와 관련, 동국제약은 센텔리안24 제품군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동국제약이 국내 제약 기업 가운데 성공적인 화장품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 대응제약 등의 쟁점



종근당의 다이소 전용 더마 브랜드 '클리덤'

/종근당건강

음도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종근당건강은 최근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전용으로 피부고민 맞춤형 더마 브랜드 '클리덤'을 공개했다.

종근당건강은 다이소 입점으로 클리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가성비 중심의 소비 유행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종근당건강은 클리덤의 '저분자 콜라겐' 기반 스킨케어 제품과 입술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 고민을 가진 10대~20대 소비자들을 정조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근당건강은 기존에는 피부건강기능화장품 브랜드 '씨케이디 개런티드'를 선보여 왔다. 종근당건강은 씨케이디 개런티드를 통해 화장품에 괄사를 접목해 증가하는 홈케어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이후 눈가용, 목 주름 관리 등 실용성을 높인 괄사 뷰티 제품군을 세분화하며 소비자층을 넓혔다.

대응제약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이지듀', 스킨케어 브랜드 '이지담' 등을 전개하며 고기능성 제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한다.

대응제약과 디엔코스메틱스가 만든 이지듀는 대응제약 30년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해 특허 성분을 개발했다. 초고활성 피부 성장인자인 'DW-EGF'는 손상된 피부부터 피부 본연의 재생 기능까지 개선해 준다는 것이 이지

듀 측의 설명이다.

이지듀는 해당 성분을 활용해 앰플, 메이크업 쿠션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이지듀가 지난 10월 자사 공식몰에서 출시한 신제품 '멜라비 토닝 기미 앰플 쿠션'의 경우, 출시 두 달만에 1, 2차 물량 10만 개가 전량 소진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응제약의 '이지담'은 'K뷰티' 대열에 합류해 제품 효능·효과를 인정받으며 K뷰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응제약에 따르면 이지담은 국소부위에 사용하는 습윤 밴드 제품으로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조직 재생을 촉진한다. 지난 2016년부터 8년 연속으로 약국 스팟케어 제품 판매 순위에서 1위를 유지하는 등 제품력을 입증해 왔다. 또 지난 2023년 8월 일본 대형 온라인 쇼핑몰 '큐텐'에 처음 진출한 이지담은 4개월 만에 실시간 스팟케어 분야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큐텐 메가와리 행사에서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소비 범위가 소비 연령, 소비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해지면서 이미 국내 화장품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해도 경쟁은 끊이지 않으며 그 양상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피부 타입별 맞춤형 '비건 클렌징 폼' 선포

애경 '알피스트', 99.5% 노폐물 제거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비건 화장품 브랜드 '알피스트'에서 모공 속 노폐물 세정과 피부 보습 기능을 갖춘 '비건 클렌징 폼'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알피스트 비건 클렌징 폼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 성분을 미세 캡슐에 담고 있다. 또 쫀쫀하고 풍성한 미세 거품을 구현해 피부 마찰을 줄이면서 모공 속 노폐물을 세정해 준다.

이와 함께 알피스트 비건 클렌징 폼은 스위스 고산지대에서 자라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에델바이스꽃과 알파인 원우드 등 8가지 허브의 추출물을 함유해 자극받은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피지 등으로 인해 번들거림이 고민인 지성 피부에 적합한 '비건 마이크로 버블 딥클린 클렌징 폼', 민감하고 건조한 건성 피부를 위한 '비건 약산성 모이스춰 클렌징 폼' 등 2종류로 구성돼 피부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실제로 애경산업은 인체적용시험에서 '비건 마이크로 버블 딥클린 클렌징 폼' 1회 사용 후 모공 속 노폐물이 99.481% 세정됐고, '비건 약산성 모이스춰 클렌징 폼'의 경우, 피부 보습량이 75%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경산업은 이들 제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PCR 소재를 50% 활용해 피부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클린 뷰티를 적극 실천했다.

/이청하 기자

혈액암 치료제 '벨케이드주' 독점 판매

SK플라즈마 포트폴리오 확대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한국안센과 다발성골수종 및 외투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벨케이드주(성분명: 보르테오맙삼합체)'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안센은 벨케이드주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SK

플라즈마는 국내 유통과 마케팅을 맡는다.

특히 SK플라즈마는 희귀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SK플라즈마는 앞서 지난 2023년 한국안센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및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다코젠주(성분명: 데시타빈)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W컨셉, 연말 선물하기 매출 30% 증가

'퍼펙트 홀리데이' 기획전 진행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연말을 앞두고 '선물하기 서비스' 매출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W컨셉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물하기 서비스 매출은 직전 열흘 대비 30% 증가했다. 제품군별로는 럭셔리 72%, 뷰티 70%, 홈 60%, 여행 54%, 가방 51%, 의류 24%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W컨셉은 이달 22일까지 연말 선물을 제안하는 '퍼펙트 홀리데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머플러, 장갑, 양말, 뷰티 상품부터 라운지웨어, 키친용품, 크리스마스용품까지 총 3만 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이 중 머플러, 장갑, 양말, 뷰티, 홈 제품군은 선물 포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선물하기 좋은 가격대별 상품도 마련했다. 3만원 미만의 귀걸이와 장갑부터 소니 헤드폰, 아더어러 머플러 등 10만원 이상 고가 상품까지 준비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11종 목표 조기달성

바이오시밀러 4종 유럽 허가권고
24조 규모 해외 시장 공략 본격 시동

셀트리온이 11종 바이오시밀러 구축 목표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 유럽에서 4종 바이오시밀러가 한꺼번에 허가 권고를 획득하면서 135조원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16일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품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약템라 바이오시밀러 '엡토즈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 '오센벨트'에 대한 유럽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엡토즈마는 류마티스 관절염(RA), 거대세포동맥염(GCA)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약템라의 바이오시밀러로, 앞서 진행된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엡토즈마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기존 TNF- α (중양표사인자) 억제제 제품군에 더해 인터루킨(IL) 억제제까지 포트폴리오가 확장돼,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약템라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4조원을 기록했다.

이날 함께 승인권고를 받은 아이덴젤트는 습성 황반변성(wAMD), 망막 정맥 폐쇄성(CRVO·BRVO)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등 주요 안과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로,

지난해 약 12조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허가 출시를 완료해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는 골다공증 및 암 환자의 골 전이 합병증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지난해 두 제품의 연간 합산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8조원에 달한다. 아이덴젤트와 마찬가지로 CHMP 승인 권고에 앞서 지난 11월 국내에서 허가를 획득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셀트리온은 승인 권고를 획득한 바이오시밀러 4종의 최종 허가를 획득하면 2025년까지 목표한 11종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조기에 완성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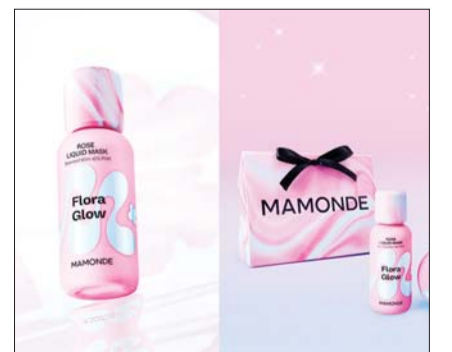
마몽드, 새 디자인 '마블'로 재탄생

아모레퍼시픽, 리뉴얼로 소비자 공략

아모레퍼시픽이 뷰티 브랜드 마몽드에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를 재단장해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디자인 '마블'은 브랜드 독자 기술력인 '하이퍼플로라'를 향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두 가지 유효 성분이 강력한 효능을 나타내는 순간을 세련되게 표현했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하이퍼플로라'는 꽃에서 발견한 성분과 부스팅 성분을 배합하는 마몽드만의 스킨케어 기술이다.

또 로즈 리퀴드 마스크는 마몽드 대표 제품으로, 올해 2월 리브랜딩 캠페인을 거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4%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 /아모레퍼시픽

고성장을 이루는 등 소비자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로즈 리퀴드 마스크를 비롯해 마몽드 주요 제품에 마블 디자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샤넬 이벤트



***현장방문 참여 가능**

- 이벤트 기간 2024. 11. 14. ~ 12. 31. (1.5개월)
- 당첨자 발표 2025. 1. 3.(금) 17시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응모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샤넬이벤트 참여

* 이벤트 참여는 나무가든 현장에서만 가능

- 경품
 - 1등 샤넬핸드백 (1명) 1800만원 상당
 - 2등 샤넬향수 (15명)
 - 3등 나무가든 5만원 식사할인권 (30명)
 - 4등 나무가든 3만원 식사할인권 (50명)
 - 5등 나무가든 생맥주 2잔 (200명)

- 기타
 - 식사할인권은 고기손님에 한해 적용 (식사손님 불가)
 - 생맥주는 식사손님/고기손님 모두 사용 가능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기간 : 2025. 2. 28까지
 - 생맥주 1인 2잔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사용은 테이블당 1회에 한함
 - 식사할인권 및 생맥주 중복사용 가능

- 문의 02-785-8883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소진공, 교육기부 대상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정부포상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발굴, 교육기부 우수사례를 전파해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위해 마련했다. /소진공



잡코리아-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 인재채용 '맞손'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외국인 인재 채용 서비스 '클릭(KLiK)'이 글로벌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잡코리아는 이번 협약으로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글로벌 인재채용 확대에 나선다. /잡코리아



삼표그룹, 자립준비청년 온·오프라인 고민상담소
 삼표그룹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나섰다. 16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그룹 사회공헌단은 진로고민, 일상생활 고충 등 조언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15명의 사연을 모집하고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삼표산업을 비롯한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 등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고민상담소를 운영했다. /삼표그룹



아산나눔재단, 기관 14곳과 '마루SF' 활성화 박사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마루SF'의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외 주요 창업생태계 기관 1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산나눔재단은 '마루SF'를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지원기관 등과 함께 한-미 창업생태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별로 육성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아산나눔재단



광동제약, 연탄은행과 '임직원 행복나눔 봉사'
 광동제약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임직원 행복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광동제약 임직원과 가족 등 40명은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 일대 에너지취약계층 20여 가구에 연탄 3000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광동제약은 지난 2005년부터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협력해 왔다. 광동제약은 매년 연탄과 봉사차량 등을 지원하며 보살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들과 온정을 나눴다. /광동제약

행복나래, 취약계층에 김치 2만7000포기 전달

(SK그룹 사회적기업)

'SK행복나눔 김장' 전달식
 29년째 누적 137만 포기 달해
 600개 기관, 2600세대에 전달

29년째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을 해온 SK가 올해로 누적 137만 포기, 무게로는 3417톤의 김치를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SK그룹은 16일 SK가 만든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에서 'SK행복나눔 김장' 전달식을 열었다.

SK는 사회적기업 세 곳이 만든 김장 2만7000포기를 구매, 이를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먹거협)를 통해 전국 600개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26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는 배추와 고춧가루 등 원재료 값 폭등으로 겨울 김장이 어려워



16일 SK가 만든 사회적기업 행복나래에서 열린 'SK행복나눔김장' 전달식에 참석한 윤종선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와 지동섭 SK수펙스협의회 SV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그룹

진 이웃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기부 물량을 전년(2만5000포기)대비 약 10% 늘렸다.

'SK행복나눔김장'은 지난 29년간 꾸준히 진행돼 온 SK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SK는 1996

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인지도 제고·매출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국내산 재료 사용 및 지역 주민 고용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는 SK스토아가 흡소빙 특별방송을 통해 김장나눔에 참여한 사회적기업들의 김치 홍보와 판매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 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사회적기업들과 동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 방안들도 끊임없이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자율준수관리자 이승업 전무(왼쪽 첫 번째), 'CP 하이 레벨 테스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 준법경영 통합인증 획득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한미약품은 최근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각각 부패방지과 규범준수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이다.

이번 통합인증 획득은 한미약품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 경영 및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해 온 성과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7년 제약 업계 최초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고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해 왔다. 또

한미약품은 지난 11월 ISO 37301 인증 심사를 통과해 부패방지과 규범준수 모두에서 ISO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이정명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및 국내사업본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미약품은 국내사업본부 임직원들의 준법 경영(CP) 역량 강화 및 관심도 증진 차원에서 도입한 'CP 하이 레벨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가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넥슨, 발달장애 재활치료 기금 3억 지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넥슨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운영기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넥슨이 전달한 운영기금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치료 비용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부담이 크고 물리치료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으로 여겨져 치료 지원이 필요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 총 62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0만~400만원의 비급여 치료비를 1년간 지원한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며 2차적인 장애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원일 원장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환자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KB다이렉트 인덱싱 서포터즈 수료식

KB자산운용, 400건 콘텐츠 발행

KB다이렉트 인덱싱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KB다이렉트 인덱싱'은 펀드매니저처럼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리 준비된 테마, 업종, 투자 대가의 전략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투자스타일에 맞춰 종목을 자유롭게 편집해 맞춤형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지난 10월 개최한 'KB다이렉트 인덱싱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의 다이렉트 인덱싱 모의투자 활동을 SNS를 통해 기록하면서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기획했다. 총 100명의 대학생이 선발돼 3개월간 교육과 모의투자 활동을 통해 'KB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의투자 경험을 쌓았다. 서포터즈들은 약 400건에 달하는 SNS 콘텐츠를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 발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부터)강정철 부산연탄은행대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허기복 연탄은행전국협의회장,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이 한국거래소 신입직원들과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거래소

거래소, 연탄 10만장 후원·배달 활동

부산, 서울 지역 450가구에 지원

한국거래소는 1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10만장을 후원하고 연탄을 배달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함께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해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뜻깊은 나눔활동을 가졌다.

거래소는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

으로 난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 부산, 서울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450가구에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을 통해 총 10만장의 연탄을 지원한다.

거래소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2011년부터 'KRX 국민행복 연탄·김치 나누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연탄 10만장 후원과 함께 김치 2만7000kg(2700박스)를 전국 복지시설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신하은 기자

인사

◆ 계통건설 ◇전무대우 승진 △경영지원본부 이병호 △건축본부 이은완 ◇상무 승진 △개발사업본부 오원영 ◇상무 보 승진 △안전경영실 천만봉 △글로벌 사업본부 이명기 △건축본부 황두연

부음

▲ 서봉화씨 별세, 우종혁·송효씨 모친상, 우연수(뉴시스 금융·증권부 기자)씨 조모상 = 16일, 계명대 경주동산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를 배우다. 시대와 통하다.

• 영도학부

• K교과학부

• 연세대학교학부

• 한양대학교학부

• 스페인어학부

•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 경영학부

•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 다문화·심리상담학부

• K뷰티학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1차 2024. 12. 1(일)~2025. 1. 16(목) 2차 2025. 2. 3(월)~2025. 2. 17(월)



문의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공연 개최,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 서울 정책에 목소리 내는 시민들

최근 4달간 시민제안 668건 접수
교통 관련 정책 제안 가장 많아
지난 9월, 문화공연 개최 제안 수용

최근 4달간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게시된 시민 제안이 66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제안에 대한 공감수는 약 1만 8000건, 조회수는 9만 8000여건에 이르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11월 상상대로 서울에 접수된 시민 제안은 총 66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수는 1만 7593건, 조회수는 9만 8111건에 달했다.

분야별로 올 8월엔 교통과 주택, 9~10월엔 환경 및 교통, 11월엔 교통 정책에 대한 제안이 가장 많이 게시됐다. 공감 최다 분야의 경우 8월은 건설, 9~10월은 환경, 11월은 교통이었다.

지난 4개월간 시는 전체 시민 제안 가운데 ▲8월은 1건 부분 수용 ▲9월은 1건 수용 ▲10월은 2건 부분 수용 ▲11월은 0건을 수용했다.

올해 8월 상상대로 서울에서 가장 많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행사 모습. /서울시

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월드컵공원 내 '서울링' 설치 강행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감수 2695건, 조회수 7872건, 댓글수 312건을 기록했다. 시는 향후 서울링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람 공고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기로 했다.

지난 9월 시가 받아들인 시민 제안은 한 달에 하루 오픈된 공간에서 문화 공연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었다. 시는 신규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서울 거리 공연-구석구석 라이브',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사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같음하며, 제안을 수용 처리했다.

올해 10월 시는 대장동대선에 DMC역을 추가해달라는 요청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관내에 조성해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일부 받아들였다. 시는 마포구에서 시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면 국토교통부와 역 신설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우면1지구에 위례과천선 신규 역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강북구 변동 '모아타운 1호' 첫삽

2028년 준공·입주 예정
총 1242세대 아파트 건립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강북구 변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 '변동 모아타운(강북구 변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변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변동 모아타운'은 지난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2022년 4월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 이듬해 7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갈등 없이 이주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아주택은 기존 재개발 사업

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대책이 부재했으나 시가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 전국 최초로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해 주거 이전 비용·영업 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 5개 구역 내 세입자 844명 가운데 조합 설립 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자와 조합 설립 인가일 전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까지 영업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자, 총 487명에 약 72억원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 심의를 거쳐 일반 분양 총 38세대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변동 모아타운 내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 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우이천변 약 6000㎡ 부지엔 공공 기여를 활용해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교육청 공약추진위, '협력 교육' 당부

정근식 교육감에 핵심비전 제시
자치와 협력 등 함께 노력해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야 할 핵심 비전으로 '협력 교육'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가 제안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무성을 가지고 참여와 소통, 자치와 협력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은



근대교육 100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의 100년은 교육 공동체가 공통의 지향점을 공유해 참여와 소통, 자치를 통한 협력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정 교육감의 공약을 체계화해 5대 영역, 5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실천 계획을 수립해 전달했다. /김현정 기자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 역량 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 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이다.

박순성 공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서울 교육이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더 깊고 넓은 혁신을 끊임없이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러한 방향성을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으로 표현했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기 동안 협력 교육의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시민 편의 높은 민원 개선사례 선정

취약계층 폐차 지원 우선지급 '최우수'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정책이 올해 최우수 민원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신청 서류와 선착순 지급으로 대부

분 중고차 매매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 대기정책과는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반영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했던 중고차 매매 법인의 신청

대수가 2023년 2808대(113억원)에서 올해 268대(13억원)으로 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수는 3325대에서 3693대로 11% 증가했다.

우수 사례(우수상)로는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요금 자동 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중구) 총 3건이 꼽혔다. /김현정 기자

성남시, '송년 콘서트' 무료공연 개최

오는 21일 성남종합운동장서 공연

성남시는 오는 21일 오후 5시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송년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아듀! 2024~하이! 2025'를 주제로 하는 이날 콘서트는 성남 갓탈런트, 청년프로예술단 댄스팀, 보컬 등으로 구성된 시민예술단의 특별 기획 공연으로 마련된다. 모두 3000명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규모다.

공연 내용은 ▲유백리의 발리댄스 ▲국악양상을 지금차보영의 '사랑아', '난감하네' ▲코리아 주니어 빅밴드의 '넌과 함께' ▲프로라틴 윤여찬·임민영의 라틴댄스 등이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시민예술단 연합 보컬 4명의 뮤지컬, 락음악 등의 공연 무대와 청년프로 예술단 댄스팀 40명의 한국 팝(K-POP) 댄스 페스티벌도 펼쳐진다.

초대 가수 박상민도 출연해 '지중해',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을 불러 분위기를 달군다.

이날 공연 무대를 꾸미는 시민예술단은 지난 4월 성남시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력이다.

당시 지원한 250개 팀(550명) 중 42개 팀(116명)이 선발됐다. 갓탈런트 예술단 21개 팀(73명), 청년프로예술단 댄스팀 11개 팀(24명), 보컬 10개 팀(19명)이다.

오늘의 날씨

12월 17일 (화)
음력 : 11월 17일

수도권 날씨
-3 ~ 2°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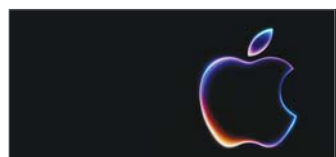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41 | 해질 / 17:15

백령도 0/3
파주 -7/2
인천 -2/2
수원 -2/2
평택 -4/3

연천 -7/2
동두천 -6/2
가평 -7/2
서울 -3/2
양평 -4/3
용인 -2/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애플 주도 '탈 엔비디아' 속도...AI 시장 판도 바뀌나? /사진 뉴시스
▲엡 더 타임스 "김건희 여사는 한국의 맥베스 부인" 집중 조명

▲尹 탄핵가결에 日정부 "한일 관계 중 요성 변함없어...긴밀 소통"
▲中왕이, 마크롱 외교수석과 회동... "中·유럽 무역전 승자 없다"



▲美 하원 상임위장직 여성 20년만 '전멸'...백인 남성 싸늘이
▲EU, 올해 마지막 외무장관회의...러 15차 제재·시리아 정세 등 논의 /사진 뉴시스



경기 침체로 문 닫는 지방 백화점 06



Life

제약사 뷰티시장 경쟁 본격화 L2



‘당근’ 울리니 온기 가득... 나눔으로 외로움 잊고, 마음 잇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당근

지역 생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이 ‘이웃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한 당근은 이웃 간 연결을 강화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당근이세요?’...중고거래·나눔으로 ‘순환 경제’ 실현

당근은 2015년 출범 이후 지난 9년간 지역 주민 간의 중고 거래와 나눔을 통해 자원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거래하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로 당근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중고 거래와 나눔의 환경적 효과는 소나무 약 3억9673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당근은 자원순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매달 11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장려하며 자원 재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 매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는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환경 보호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환경보호 실천 미션 참여 이벤트와 함께 ‘사생대회’를 개최해 일상 속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를 장려하고 친환경 실천 의식을 고취했다.

당근은 이러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024 대한민국 ESG 소비자 브랜드 대상’에서 ESG 디지털 자원순환 혁신상을 받았다. 중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원 재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나눔과 자원 순환을 장려해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당근 관계자는 “이웃 간 거래와 나눔은 환경 보호와 생활의 편리함을 동시에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순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연결’해 사회적 가치 창출

당근은 동네 생활권(하이퍼로컬)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일, 당근은 서울시와 ‘외로움 없는 서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고립·은둔가구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지역 기반 모임 활성화를 통해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당근이 ‘이웃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지난 2일 서울시장에서 활동한 당근마켓 대표(왼쪽에서 5번째)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6번째) 등이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 당근은 개인 간 중고거래 시 발생한 분쟁 해결 사례를 엮은 ‘당근 분쟁조정사례집’을 지난 11월 발간했다. /당근

중고거래·나눔으로 재사용 문화 확산 매달 ‘나눔의 날’ 지정, 자원순환 장려 세계 환경의 날엔 환경보호 행사 개최

공공기관·지자체와 지역문제 해결 앞장 고립·은둔가구 사회적 활동 참여 도와 소상공인·주민 연결 ‘소통창구’ 역할도

분쟁조정센터 출범, 분쟁 직접 조율 건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이에 앞서 당근은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와 자원봉사 및 기부·자선 활성화를 위한 ‘온기 나눔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 경험 나누기 이벤트’를 개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플랫폼인 ‘1365자원봉사포털’과 연동해 자원봉사 및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협업해 ‘당신 근처의 광산(당근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당근의 구인·구직 서비스 ‘당근알바’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공공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당근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당근 관계자는 “당근의 지역성을 활용해 공공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활발한 일자리 연결을 이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동네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특히 ‘동네생활’ 서비스는 이웃들이 솔직한 정보와 진솔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 간 활발한 교류를 하도록 돕는다. 별도의 까다로운 가입 절차 없이, 동네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학업, 취업, 결혼, 이사 등으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한 이들에게 맛집 추천부터 장비 대여까지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생활에 꼭 필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근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분실물센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당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분실·실종’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은 약 17만 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려동물이나 분실물을 찾은 사례가 꾸준히 전해지며 주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안전한 거래 환경’ 구축으로 신뢰 강화

당근은 개인 간 거래(C2C)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특성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근은 국내 C2C 플랫폼 최초로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해 이용자 간 중고거래 분쟁을 직접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500건 이상의 분쟁을 해결하며 거래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 시 발생한 분쟁 해결 사례를 엮은 ‘당근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와 해결 노하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또 늘어나는 부동산 거래 수요에 맞춰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 당근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클린주택’ 리스트를 바탕으로 당근은 부동산 게시판에 올라온 매물 중 클린주택에만 별도 인증 마크를 표기해 클린주택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건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 양 기관은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혁신 사업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당근이 하이퍼로컬 서비스를 통해 4000만 이용자와 함께할 수 있던 이유는 동네의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서비스 철학을 기반으로, 생활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기반 서비스를 선보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긴밀히 연결하고,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박혜정, 세계역도선수권서 2위...용상 혁신기록 /사진 뉴스스
▲‘파리올림픽 동메달’ 임종훈-신유빈, 발드네르컵서 월드컵 제압

▲韓력비 청소년 대표팀, U-19 아시아 럭비 챔피언십 출전
▲부진으로 ‘승강 PO’까지 치른 프로축구 전북, 김두현 감독과 결별



▲황희찬의 올버햄튼, 성적 부진으로 오늘 감독과 결별
▲‘EPL 득점 공동 18위·팀 최다 도움 1위’ 손흥민 “동료들 자랑스럽다” /사진 뉴스스